

16/05/01(주) 주일예배 / 제목 : 애통하는 자의 복 (마 5:4) p.5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애통~~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물이 많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새들이 지저귀는 모습을 표현할 때에, 영어에서는 ‘새들이 노래한다’(Birds are singing)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새가 운다’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새들만 우는 것이 아니라, 벌레도 운다고 하고, 매미도 운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귀가 운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치거나 때리고 싶은 울화를 참을 때 하는 말이 ‘저런 놈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더니 내 주먹이 우는구나.’ 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먹까지도 운다.

왜 우리 한국사람들은 하필이면 노래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운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다는 표현이 우리의 정서를 나타내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보면 참으로 울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살림이 힘들어서 울고, 마음이 아파서 울고, 억울해서 운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울고, 화가 나서 울고.

그런데 남자들은 울고 싶어도 마음껏 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만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남자들은 울지 않아야 남자답다고 생각하여 참는 것이 보편화되어 왔습니다. 어려서도 남자 아이들은 밖에서 넘어져서 울고 들어오면, 어른들이 “뚝,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은 울면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눈물이 우리 영혼에 내리는 단비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먼지로 가득한 하늘에 비가 옴으로 모든 먼지가 제거되고 하늘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줍니다. 화가 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실컷 울고 나면 화가 수그러들고, 슬픈 일로 인해 가슴이 답답할 때 눈물을 흘리며 울고 나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하는 일이 풀려지 않아 힘들어 고통스러울 때 눈물을 흘리며 울고 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됩니다. 그마만큼 눈물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왜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만 울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애통이란 거룩한 애통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겪는 애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이며, 이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거룩한 애통이 주님이 원하시는 애통임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론** / 주님이 원하시는 애통은 무엇인가?

### 1. 나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모든 위선의 껍질을 벗고, 또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던 환상의 세계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무서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한 순간에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자랑했던 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영혼 앞에서 이런 것들이 참으로 보잘 것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의 내면의 세계가 폐허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남겼으며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면 과연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인생의 깊은 회의와 절망과 허무감에 빠지는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그는 가슴을 치면서 오로지 자기 안에 있는 것은 죄와 허물뿐이고 기억하기 싫은 과거만이 남아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조용히 내면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울어도 끝이 없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도 그 애통함이 끝이 없는 비참한 상태를 애통한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듭나는 사람에게 경험되는 애통입니다. 이때 흘리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 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든지, 간절하게 기도할 때라든지, 특별한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42:3)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6:6)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119:136)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는 자신의 심정이 얼마나 애절한지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일생에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총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밋세바와의 범죄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에 그 죄를 감추려 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자 한 번의 눈물로 회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침상과 요를 다 적실만큼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간음죄에다 살인죄까지 저질렀다면 그는 사회에서 매장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밤마다 침상과 요를 적시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과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입니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할 때에 행한 일 때문에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모두 죽여야 했습니다. 심지어 젖먹는 아이까지도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온 것은 물론이고 양과 소 가운데서 기름진 것과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잡아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삼상15:20~21\)](#) 죄를 백성들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그 때서야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삼상15:30\)](#) 이걸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감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전쟁의 영웅으로 인정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티끌만도 못한 부끄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처럼 매일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

한다 하더라도 그 죄를 다 용서받기에 부끄럽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을 백성들 앞에서 영웅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진실한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손을 물로 씻으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땀을 흘리고 난 후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면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해도 우리 몸에는 60억 마리가 넘는 미생물이 여전히 붙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1시간만 지나면 엄청난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번식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우리 몸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현미경보다 더 정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더럽고 지저분할 뿐입니다. 감추어진 죄악이 모두 드러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멀리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을 통해서 봅니다.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으로 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은 몸 안에 있는 것은 내시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자신의 보습을 진실되게 보며 애통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언해 주시고, 그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선물로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애통은 무엇인가? 1. 나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2.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사랑이 들어있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웃이 당하는 슬픔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이 3번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요11:35), 멸망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눅19:41).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결정하고 겻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하셨습니다(히5:7).

이러한 주님의 눈물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사랑의 계량기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서 울고 있는 울음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겪고, 아파할 때, 그들을 향한 눈물이 나오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울어 주어야 합니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롬12: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사람이 된다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경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고 애통해 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자기의 죄로 알고 대신 애통하는 경지까지 간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의 모든 죄와 허물이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아파하고 대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웃의 모든 죄와 허물이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아파하고 대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하는 유다 나라와 그로 인해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유다의 백성들과 귀족들과 왕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들의 비참한 미래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울면서 유다의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웃의 모든 죄와 허물이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아파하고 대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통곡했던 것입니다. 결국 왕의 재가를 받고 고국에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레미야처럼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고 애통해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자기의 죄로 알고 대신 애통하는 경지까지 간 사람을 말합니다.

(느1:2~7) (2)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 이르되 .... (6) ....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사람은 이웃의 모든 죄와 허물이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아파하고 대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느헤미야도 고국의 동포를 위해서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적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동족들 때문에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족의 완악한 마음을 대할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 사역에 정성을 다한 사도입니다. (롬

9: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가지고 전도했던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애통함이란 것도 바로 이런 마음 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의 구원에 대하여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 곧 이웃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 가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가족과 친구와 친족에게 전도하고자, 마음과 정성을 다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친족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전도할 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시126:5~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보상까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흥미있는 사실은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리칼레오’인데, 이 단어는 ‘곁에서 부르다’는 뜻으로 ‘성령’(파리칼레토스)과 동일 어원입니다. 곧 우리가 애통해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므로 우리의 애통이 평안으로, 근심이 성숙으로, 고난이 선으로 바뀌어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믿음의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애통하는 사람, 이와 같이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시어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울어 보셨습니까?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적실만큼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슬픔을 당하여 마음 아파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울어보셨습니까? 자신의 죄악과 마음 아파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은 더욱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잘 산다고 부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건강하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음에 안타까워하며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애통을 가지고 복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참다운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자신의 죄악과 타인의 영혼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참다운 위로를 받으시다.

**요약정리** / 주님이 원하시는 애통은 무엇인가?

1. 나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2.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애통하는 사람입니다.